

발행인 김혜순 / 발행일 2024.05.31. / 발행처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혼인 동향(2000~2023)

이나련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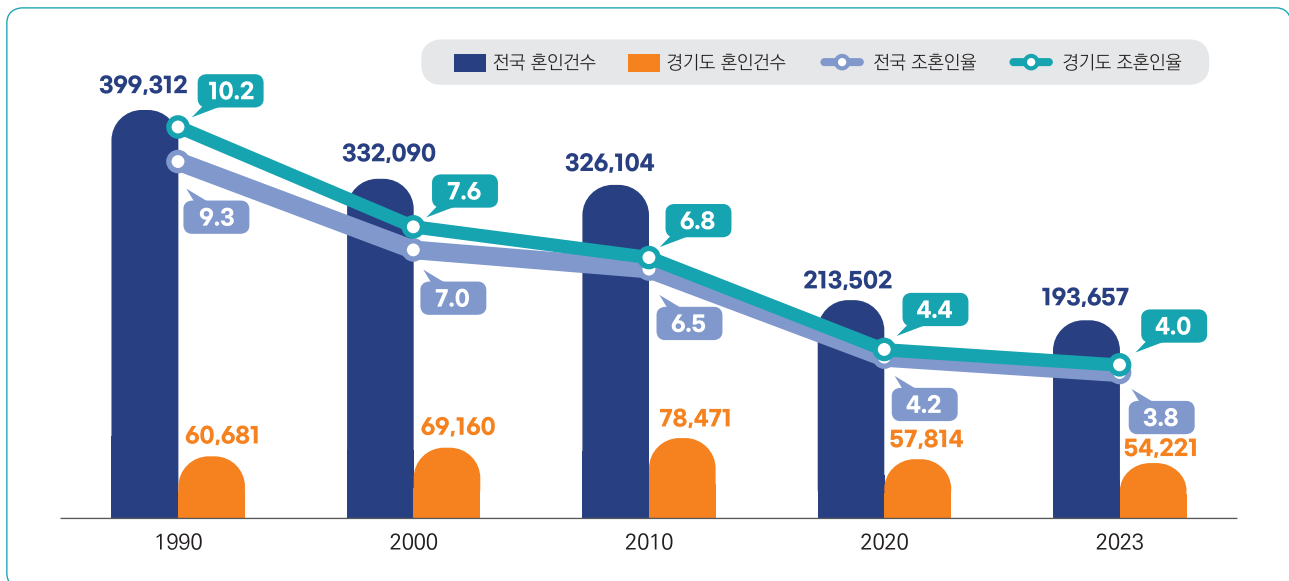
1 | 혼인 건수 및 혼인율 변화

가. 줄어드는 혼인 건수

- 전국과 경기도의 혼인 건수는 1990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2000년대 후반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전국의 혼인건수는 1990년 399,312건에서 2023년 193,657건으로 감소하였고, 경기도의 혼인건수는 1990년 60,681건에서 54,221건으로 마찬가지로 감소하였음. 1990년 대비 전국의 혼인건수는 51.5%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경기도는 10.6% 감소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지난 30년간 혼인건수의 감소는 전국보다 적은 폭이었음.
- 인구 천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 역시 혼인건수와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경기도의 조혼인율 역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전국의 조혼인율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그림 1 전국 및 경기도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

(단위: 건, 인구천명당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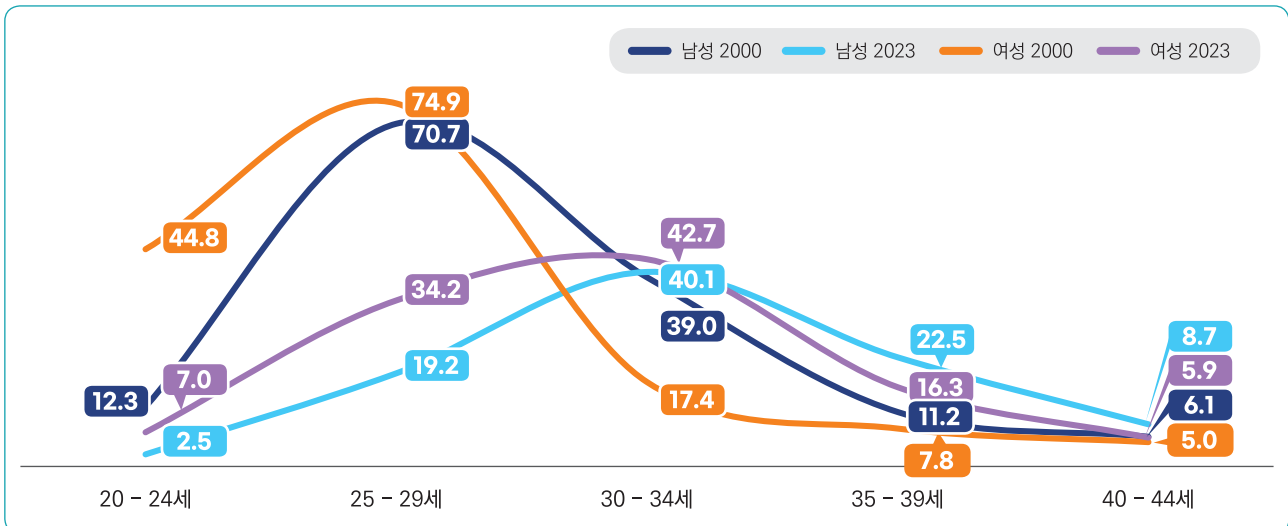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

나. 30대는 증가, 20대는 감소

- 2023년 전국 연령별 혼인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30~34세로 여성은 천명당 42.7건 남성은 40.1건이었으며, 여성은 25~29세가 34.2건으로 두 번째로 높았던 것에 반해 남성은 35~39세가 22.5건으로 두 번째로 높았음.

그림 2全國의 연령별 혼인율(2000, 2023)

(단위: 천명당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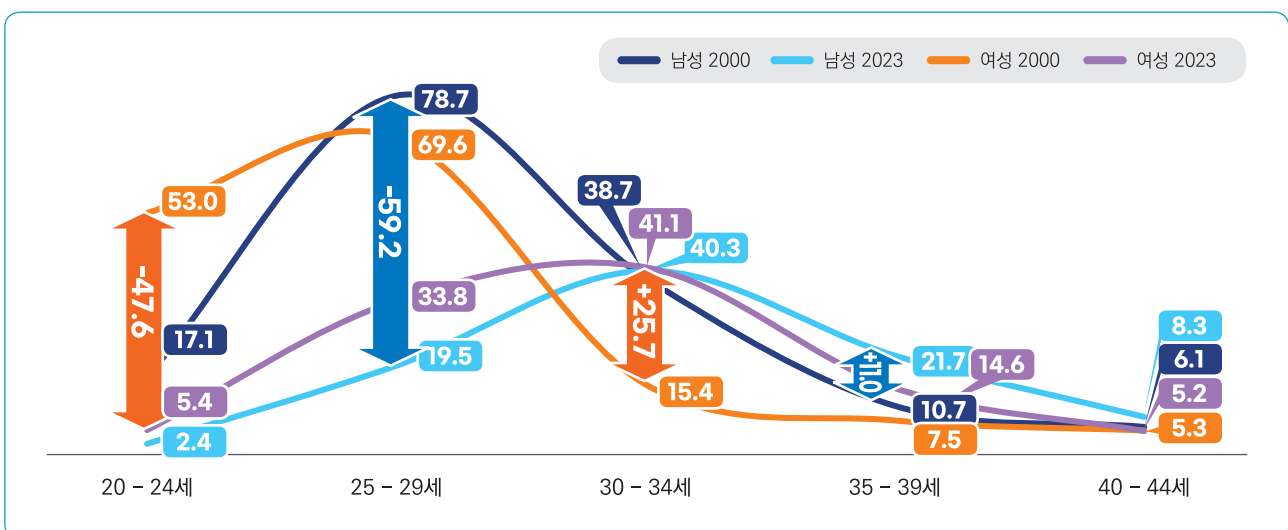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

- 경기도 역시 2023년 30~34세의 혼인율이 가장 높았고 남성은 40.3건으로 전국과 유사하나 여성은 41.1건으로 전국 보다 약간 낮음. 2023년 남성의 연령대별 혼인율이 2000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연령대는 25~29세로 인구천명당 59.2건이 감소하였고, 여성은 20~24세로 47.6건이 감소하였음. 혼인율이 증가한 연령대는 남성은 35~39세로 11.0건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30~34세로 25.7건으로 남성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

그림 3경기도의 연령별 혼인율(2000, 2023)

(단위: 천명당 건)



2 | 혼인 건수 및 혼인율 변화

가. 초혼은 감소, 재혼은 증가

- 전국과 경기도 모두 전체 혼인에서 초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을 차지하여 혼인 중 초혼의 비율이 높기는 하나 재혼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전국의 경우 2023년 기준 여성의 재혼비율이 남성보다 1.9%p 높음. 2000년 대비 전국 여성의 초혼비율이 4.0%p 하락하여 가장 큰 변화를 보였으며, 남성은 3.3%p 감소한 수준임.
- 경기도는 전국과 유사하게 초혼비율이 여전히 높고 남성의 초혼 비율이 여성보다 높음. 2023년 기준 전국보다 초혼 비율이 약간 높은 경향을 보여 여성은 0.8%p, 남성은 0.4%p 전국보다 높았음. 경기도의 초혼비율은 2000년 대비 전국보다 적은 3.0%p 수준에서 하락함. 2023년 경기도 여성의 재혼 비율은 17.5%로 2000년 대비 2.7%p 증가하여 전국 여성의 재혼 증가 폭(1.9%p)보다 더 큰 경향을 보였음.

표 1 전국 및 경기도의 혼인종류별 건수

(단위: 건, %)

구분			2000		2010	2020	2023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전국	계		332,090	100.0	326,104	213,502	193,657	100.0
	여성	초혼	283,357	85.3	268,541	175,033	157,447	81.3
		재혼	48,132	17.0	57,451	38,064	35,223	18.2
	남성	초혼	288,178	86.8	272,972	180,059	161,628	83.5
		재혼	43,370	13.1	53,043	33,261	31,644	16.3
경기도	계		69,160	100.0	78,471	57,814	54,221	100.0
	여성	초혼	58,848	85.1	64,503	47,403	44,516	82.1
		재혼	10,259	14.8	13,943	10,300	9,477	17.5
	남성	초혼	60,157	87.0	65,931	48,644	45,494	83.9
		재혼	8,962	13.0	12,540	9,161	8,706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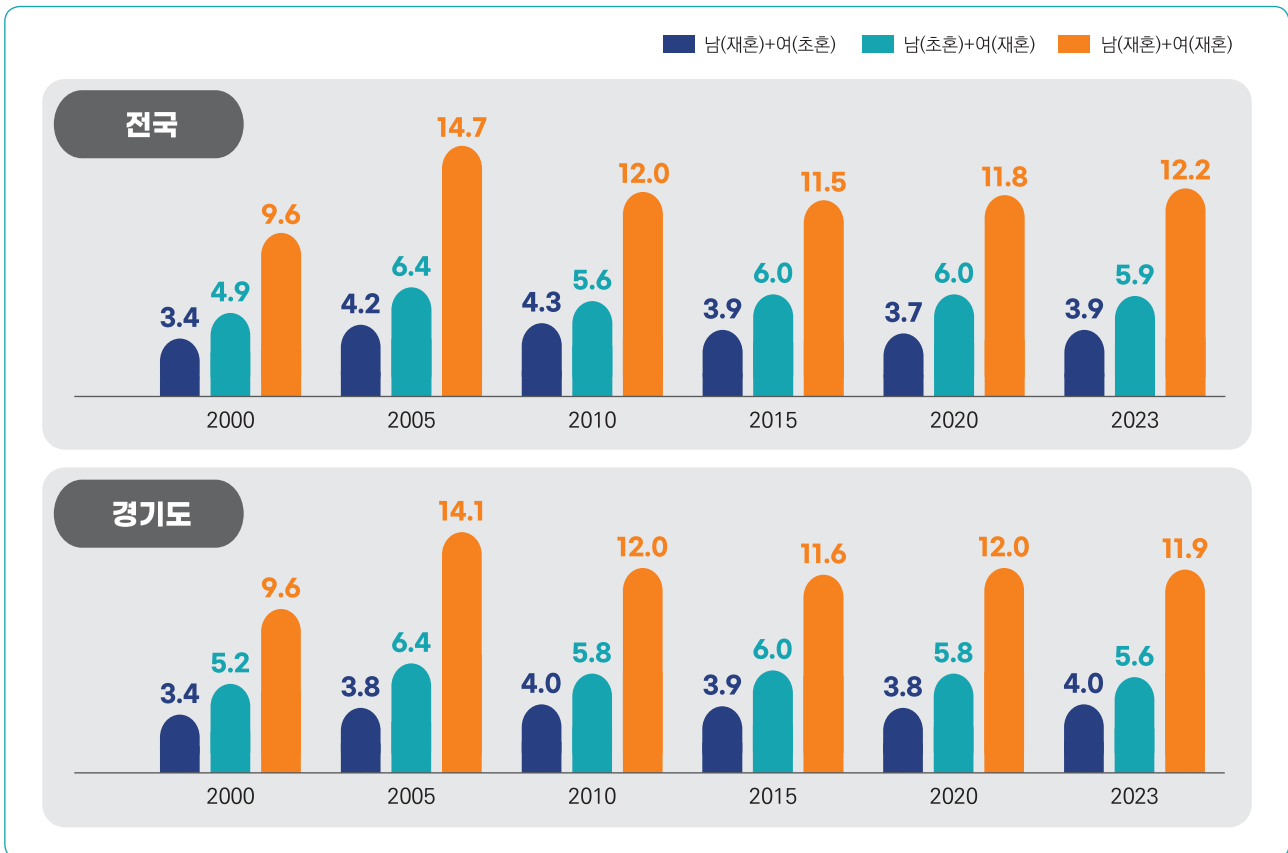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년도).인구동향조사.

주. 계는 미상을 포함한 것임.

- 전국과 경기도 모두 남녀 모두 초혼인 혼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국 기준 2000년 81.9%였던 남성초혼+여성 초혼 비율은 2023년 77.3%로 4.6%p 감소한 반면, 남녀모두 재혼의 비율은 9.6%에서 12.2%로 2.6%p 증가함.
- 전체 혼인에서 여성 재혼+남성 초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성 초혼+ 남성 재혼의 비율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며, 경기도는 2005년 2.6%p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나 2023년에는 전국(2.0%)의 차이보다 0.4%p 적은 차이를 보임.

그림 4 전국 및 경기도의 혼인 중 재혼종류별 비율

(단위: %)



주. 남녀모두 초혼 및 미상은 제외함.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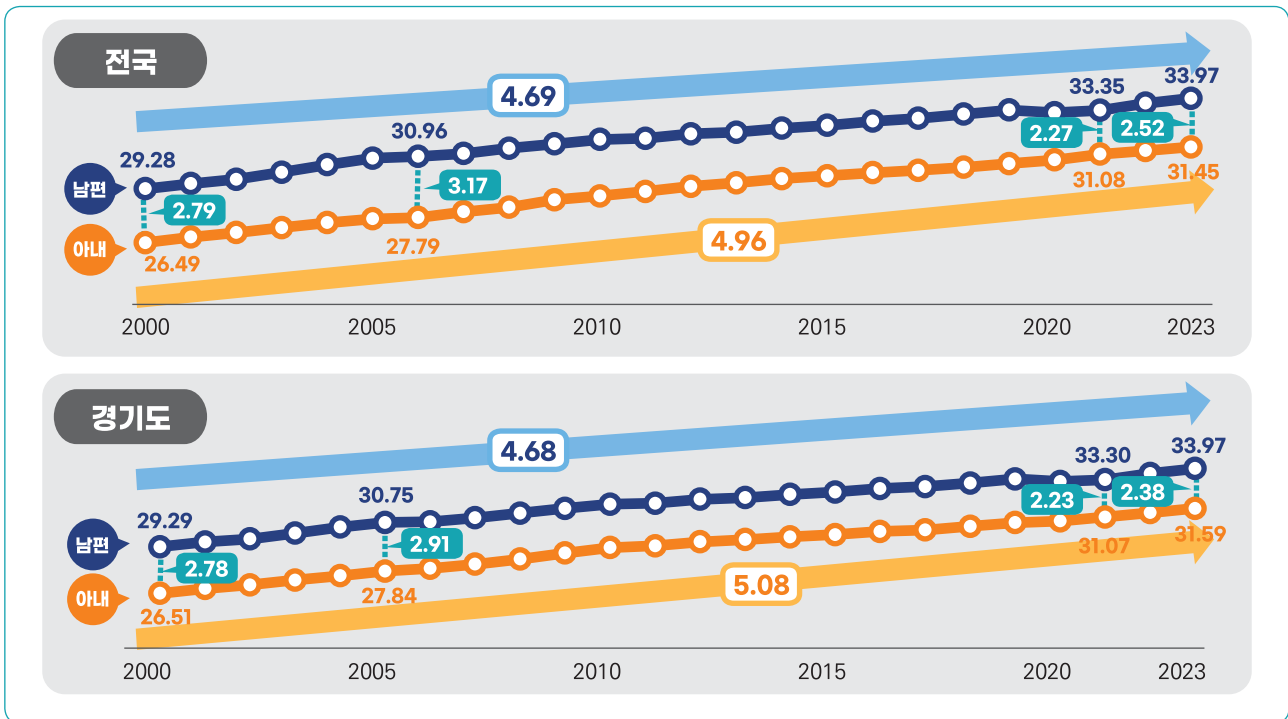
나. 높아지는 혼인 연령, 여성 연상 혼인 증가

1) 초혼 부부: 남성 연상 초혼 비율은 감소, 동갑보다 여성 연상 초혼 비율 높음

- 초혼 부부의 초혼 평균 연령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남편의 평균 초혼연령은 2000년 전국기준 29.28세에서 2023년 33.97세로 4.69세 증가하였고 아내의 평균 초혼연령은 같은 기간 남편보다 약간 높은 4.96세 증가함. 부부간 평균 초혼 연령 차이는 2006년 3.17세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나 이후 조금씩 감소하여 2021년 2.27세로 가장 적은 차이를 보였고 2023년 2.52세의 차이를 보임.
- 경기도 역시 전국과 마찬가지로 초혼 연령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경기도 초혼 평균연령은 남성 33.97세, 여성 31.59세로 2000년 대비 남성은 4.68세, 여성은 5.08세로 여성의 평균 연령 증가폭이 전국보다 더 크게 나타났음.
- 경기도 시·군 중 남편의 초혼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34.71세)였고, 아내의 초혼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명(32.34세)였음. 초혼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지역은 연천으로 남편 31.55세, 아내 29.31세였음.
- 부부간 초혼 평균 연령차이가 가장 적은 지역은 과천으로 1.61세 차이를 보였으며, 동두천은 부부간 초혼 평균연령 차이가 3.99세로 가장 컸음.

그림 5 전국 및 경기도 초혼 부부의 평균 연령 추이

(단위: 세)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

- 전국기준 2023년 초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30~34세로 남성은 42.4%, 여성은 40.5%였으며, 남성은 25~29세 및 35~39세의 혼인 비율이 각 21.0%로 같은 수준이었으나 여성은 25~29세의 비율이 34.2%로 30대 후반보다 20%p이상 높음.
- 경기도 역시 남성은 30~34세의 비율이 42.8%, 여성은 4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남성은 35~39세가, 여성은 25~29세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임.

표 2 초혼 부부 연령별 비율(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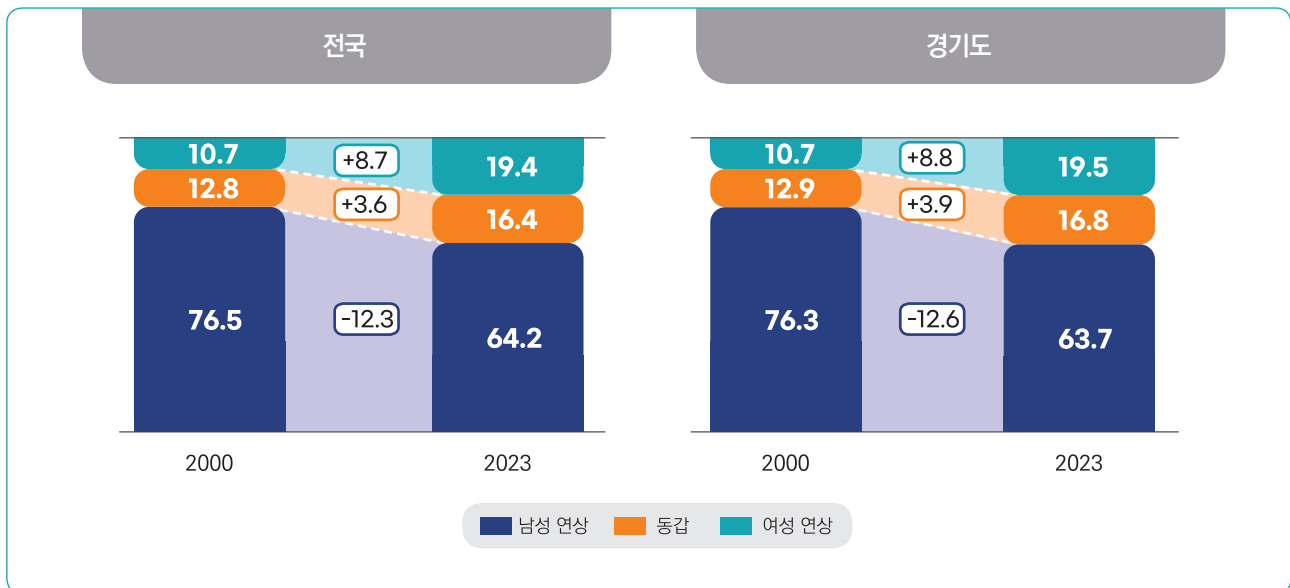
연령	전국		경기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9세 이하	0.1	0.8	0.1	0.3
20 - 24세	2.3	5.8	2.1	4.7
25 - 29세	21.0	34.2	20.9	34.6
30 - 34세	42.4	40.5	42.8	41.9
35 - 39세	21.0	13.0	21.0	12.9
40 - 44세	8.3	4.1	8.2	3.9
45 - 49세	2.9	1.0	2.8	1.0
50 - 54세	1.3	0.4	1.3	0.3
55세 이상	0.7	0.3	0.8	0.3

자료: 통계청(2023), 인구동향조사.

- 전국기준 2023년 초혼부부 남성 연상 혼인 비율은 64.2%, 여성 연상 혼인은 19.4%, 동갑 혼인은 16.4%로 지난 20년동안 남성 연상 혼인은 감소하고 여성 연상 혼인과 동갑 혼인은 증가함. 남성 연상 혼인이 2000년 대비 12.3%p 감소하였으나, 여성 연상 혼인은 8.7%p 증가하였고 2000년 동갑 혼인보다 비율이 낮았던 여성 연상 혼인 비율이 2023년에는 동갑 혼인보다 높아졌음.

그림 6 경기도 및 전국의 초혼 부부 연령차에 따른 혼인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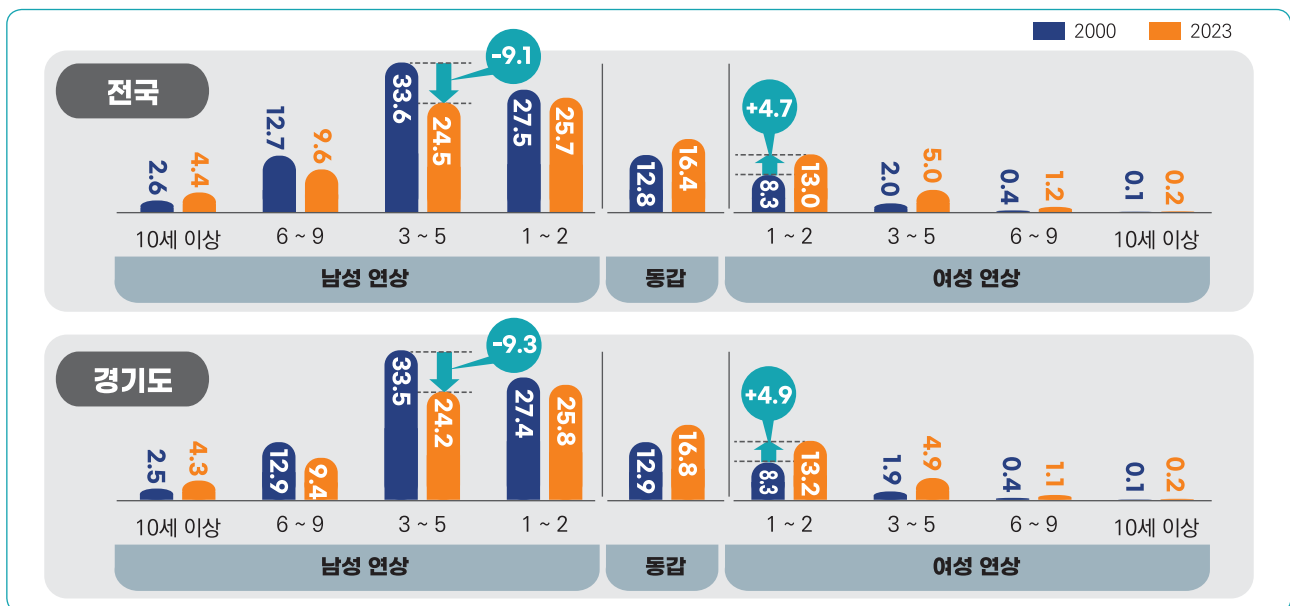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

- 경기도는 전국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남성 연상 혼인 비율은 63.7%, 여성 연상 19.5%, 동갑 16.8%였음. 2000년 대비 경기도의 여성 연상 초혼 비율은 8.8%p 증가하여 동갑 비율보다 큰 폭으로 변화하여 여성 연상 초혼 비율이 동갑보다 더 높아짐.
- 전국기준 초혼부부의 남성 연상 혼인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도 10세 이상 남성 연상 혼인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00년 대비 10세 이상 남성 연상 초혼 비율은 1.8%p 증가하였으나, 3~5세 남성 연상의 초혼비율은 9.1%p 감소함. 모든 연령차에서 여성 연상 혼인의 비율은 증가하였고, 그 중 1~2세 여성 연상 혼인이 2000년 대비 4.7%p 높아져 가장 큰 증가를 보였음.
- 경기도 역시 전국과 유사하게 2000년 대비 10세 이상 남성 연상은 소폭 증가하고 여성 연상의 모든 연령차이 비율이 증가하였음. 전반적으로 전국보다 변화 폭이 조금 더 큰 경향이 있어 남성 연상 3~5세는 9.3%p 감소하였고, 1~2세 여성 연상 비율은 4.9%p 증가함.

그림 7 경기도 및 전국의 초혼 부부 세부 연령차에 따른 혼인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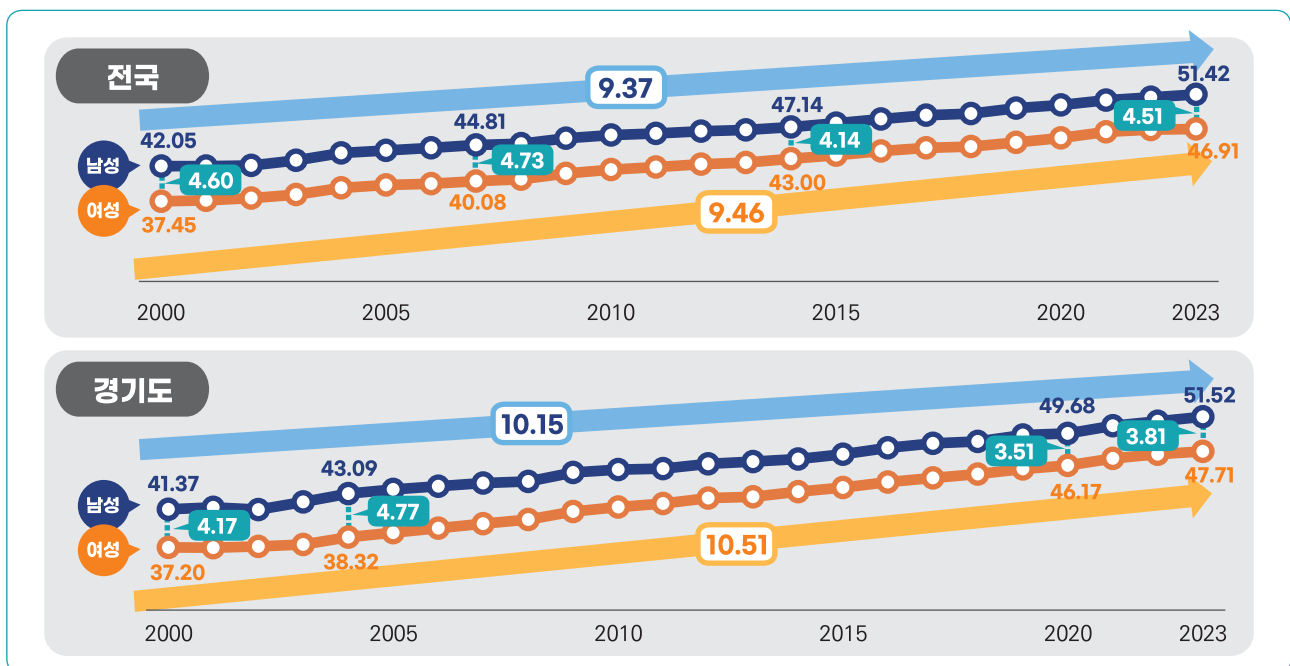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

2) 재혼부부: 초혼보다 높은 부부간 연령차

- 2023년 평균 재혼 연령은 남성 51.42세, 여성 46.91세로 2000년보다 남성은 9.37세, 여성은 9.46세 증가하였음. 2000년 4.60세였던 재혼 부부간 평균 연령차이는 2007년 4.73세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2014년 4.14세로 가장 적은 차이를 보였음. 2023년 기준 재혼 부부간 평균 연령차이는 4.51세임.

그림 8 전국 및 경기도 평균 재혼 연령 추이

(단위: 세)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

- 경기도의 평균 초혼 연령은 전국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재혼 부부의 평균 연령은 2000년 전국보다 약간 낮았음. 2023년은 전국보다 약간 높은 경향을 보여 2000년 대비 남성은 10.15세, 여성은 10.51세 증가함. 재혼부부간 평균 연령차이는 2004년 4.77세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2010년 이후 4세 이하의 차이를 보여 4세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전국보다 낮은 수준임. 이는 남성의 재혼 평균 연령은 전국과 비슷하나 여성의 재혼 평균 연령이 전국보다 높기 때문임.
- 2023년 재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연령대는 성별무관하게 50~54세였으며, 남성은 60대 이상이 23.0%로 높은 반면, 여성은 30대가 25.3%로 60대 이상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 경기도의 경우 전국보다 50~54세 여성 재혼자 비율이 높아 남성 50~54세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 여성 재혼자중 60세 이상의 비율도 전국보다 높았음.

표3 재혼 부부 연령별 비율(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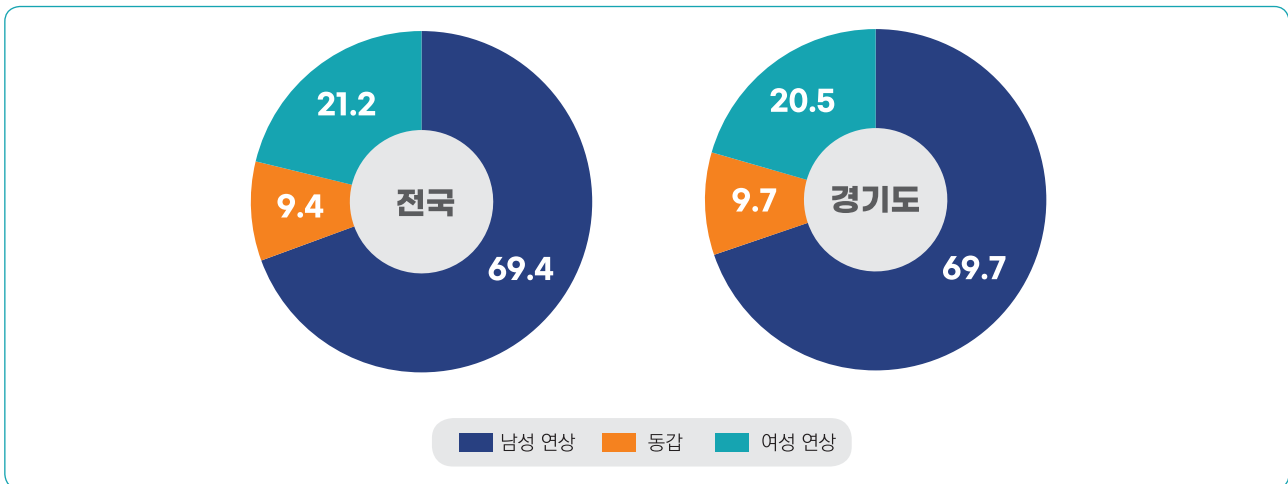
연령	전국		경기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4세 이하	0.2	1.0	0.2	0.7
25 - 29세	1.8	4.8	1.7	4.2
30 - 34세	5.4	11.2	5.8	10.0
35 - 39세	10.1	14.1	9.6	13.2
40 - 44세	13.6	14.4	13.2	14.3
45 - 49세	14.5	14.1	14.9	14.5
50 - 54세	16.9	15.8	16.8	16.7
55 - 59세	14.6	11.2	14.9	11.7
60 - 64세	11.4	7.5	11.6	8.2
65 - 69세	5.6	3.3	5.6	3.7
70세 이상	6.0	2.7	5.8	2.9

자료: 통계청(2023). 인구동향조사.

- 2023년 전국기준 재혼부부 남성 연상 혼인 비율은 69.4%, 여성 연상 혼인은 21.2%, 동갑은 9.4%로 지난 20년간 큰 변화가 없이 5%p 이하 수준에서 남성 연상은 감소하고 동갑 및 여성 연상은 증가함. 초혼부부의 동갑과 여성 연상 비율이 유사했던 것과 달리 재혼부부의 경우 동갑보다는 여성 연상의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여 여성 연상은 20%이상, 동갑 비율은 10%이하를 차지함.
- 경기도는 전국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남성 연상 혼인 비율은 69.7%로 2000년의 73.2%에 비해 3.4%p 감소하여 전국보다 감소폭이 적음. 여성 연상의 재혼부부 비율은 20.5%로 2000년에 비해 1.2%p 증가하여 전국보다 역시 적게 변화함.

그림 9 경기도 및 전국의 재혼 부부 연령차이에 따른 비율(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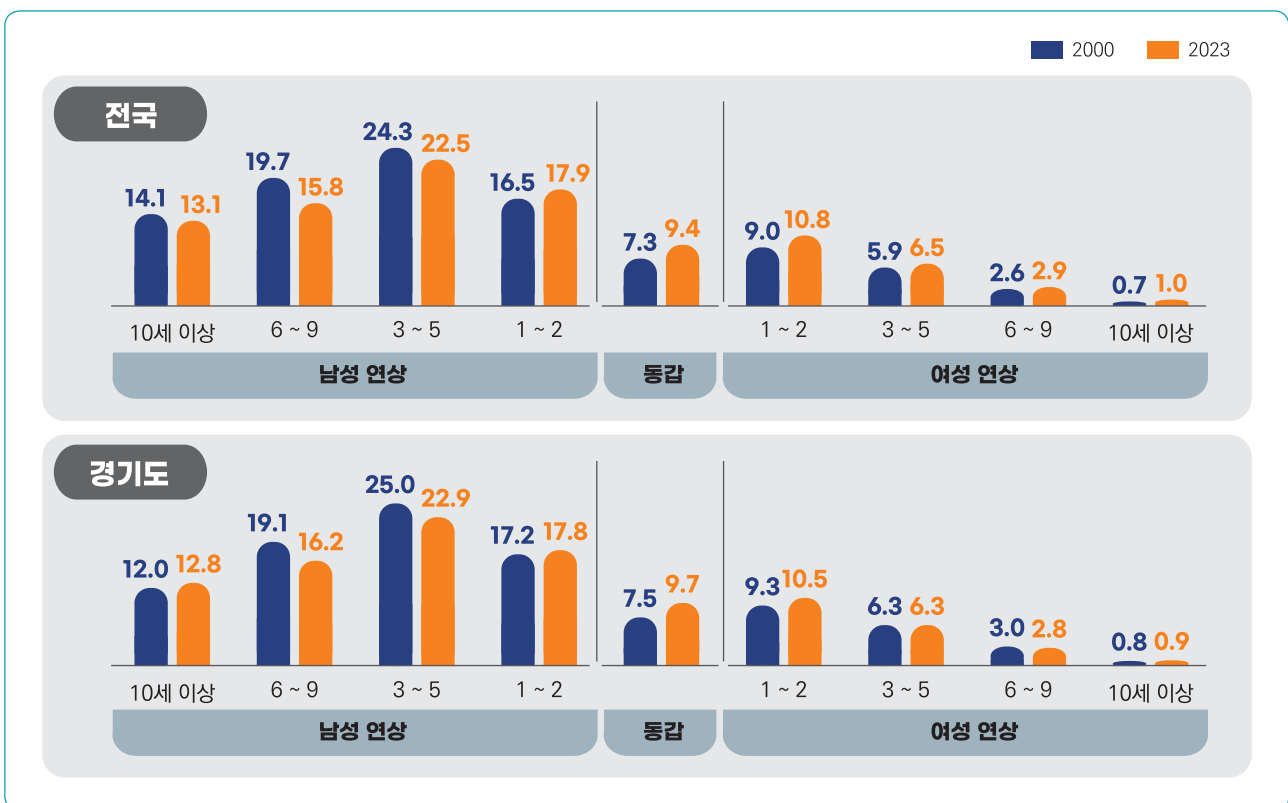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3). 인구동향조사.

- 재혼부부의 연령차는 지난 20년간 큰 차이는 없으나 남성 6~9세 연상 재혼의 비율이 2000년 대비 3.9%p 감소하여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동갑의 비율이 2.1%p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임.
- 경기도 재혼부부의 연령차는 전국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음.

그림10 경기도 및 전국의 재혼 부부 세부 연령차이에 따른 혼인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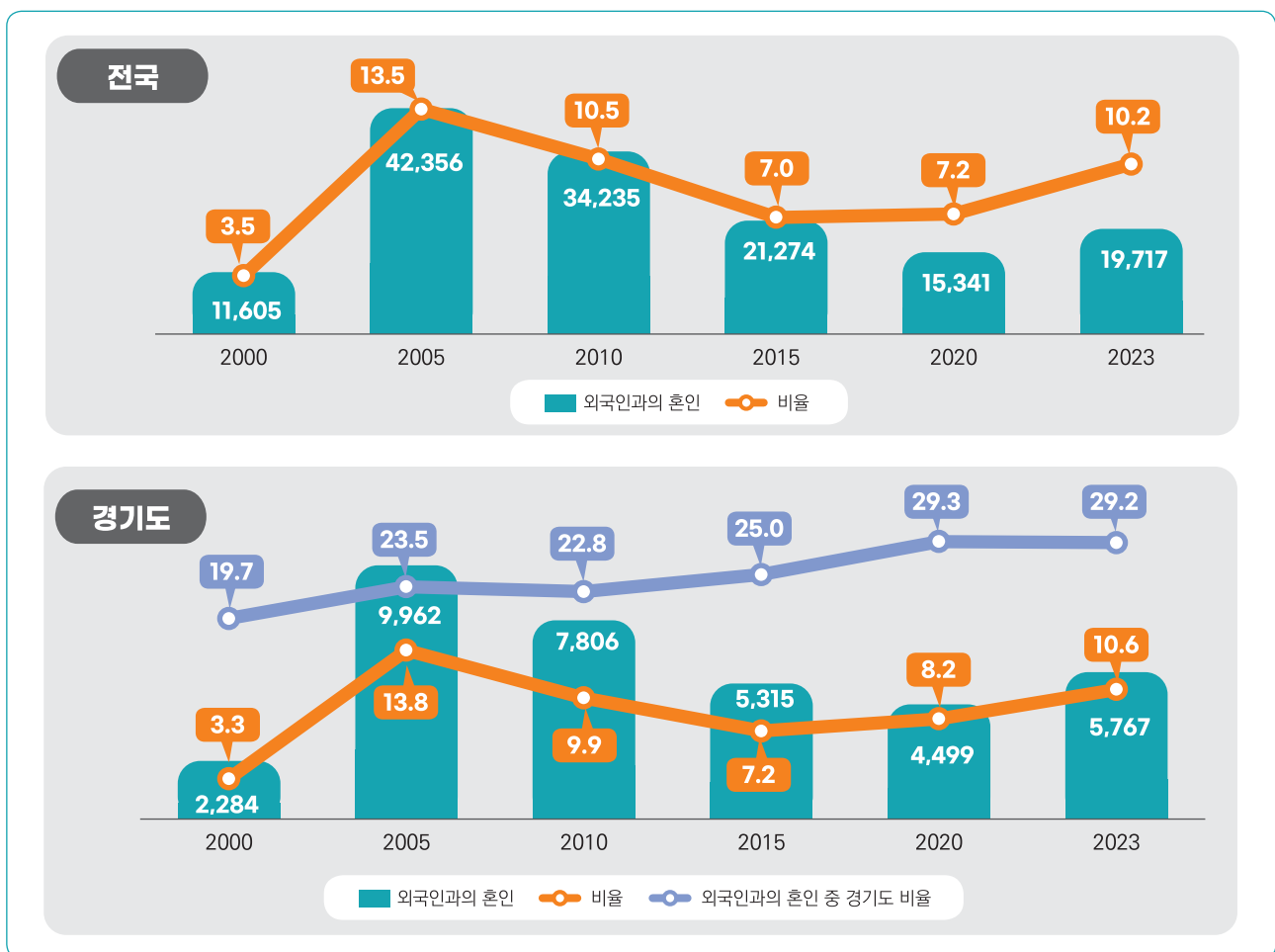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

3) 다시 증가하는 외국인과의 혼인

-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2005년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2021년 최저치(13,102건)를 기록하였고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경기도의 외국인과의 혼인 역시 전국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2023년 경기도의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5,767건으로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6%이며, 이는 전국의 외국인과의 혼인 비율과 유사함.
- 전국의 외국인과의 혼인에서 경기도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23년 현재 전체 외국인과의 혼인 중 경기도의 외국인 혼인 비율이 29.2%를 차지함.

그림 11 전국 및 경기도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건, %)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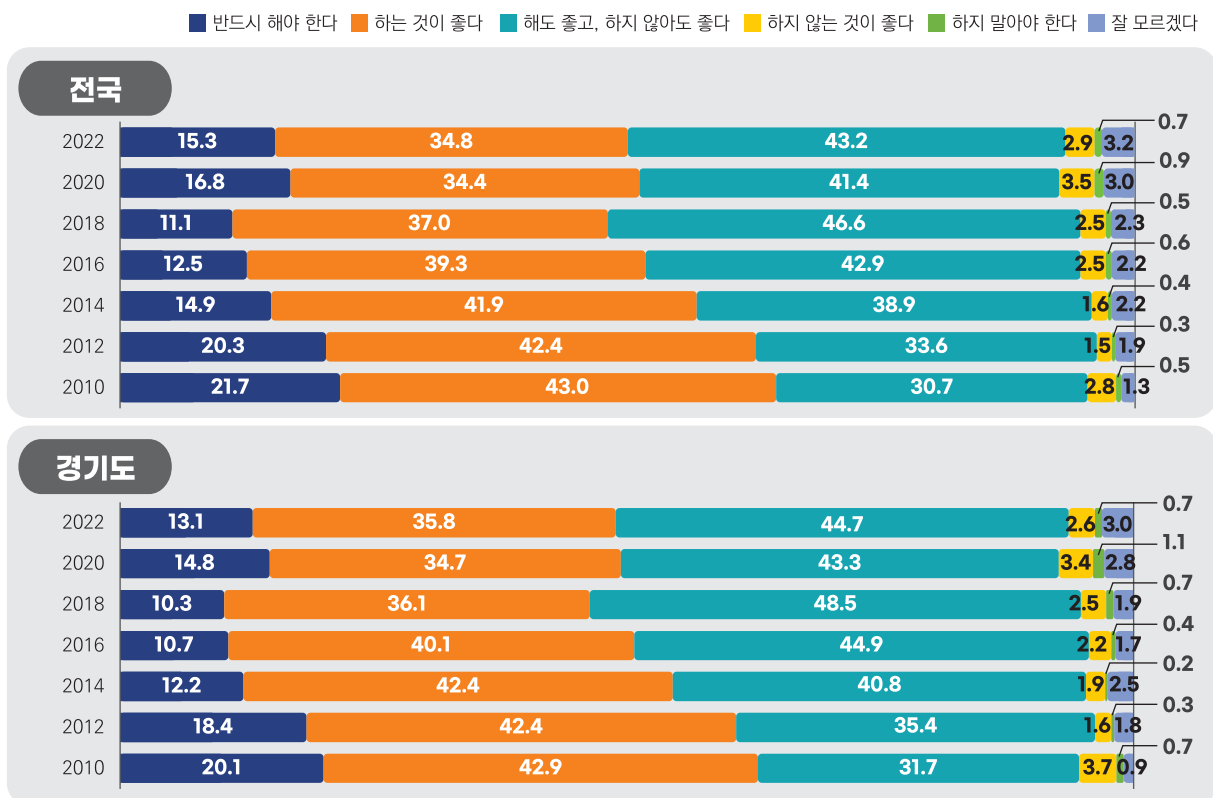
3 | 결혼에 대한 태도

가.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서의 결혼

- 결혼에 대해 2010년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3.0%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20%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결혼은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였음, 그러나, 2016년부터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의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2022년에는 43.2%의 응답 비율을 보여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보다 8.4%p 높은 수준을 보였음. 이는 2010년 응답보다 12.5%p 높은 수준이며 2010년의 '하는 것이 좋다'의 응답과 유사한 수준임.
- 경기도는 전국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니, 전국보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의 응답이 약간 높은 경향을 보임. '하는 것이 좋다'의 응답은 2010년 42.9%에서 2022년 35.8%로 7.1%p 감소하고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은 31.7%에서 44.7%로 13.0%p 상승함.
-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의무적 태도는 감소하고 선택적 태도는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잘 모르겠다'의 응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결혼에 대한 보류적 태도 역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12 전국 및 경기도의 결혼에 대한 견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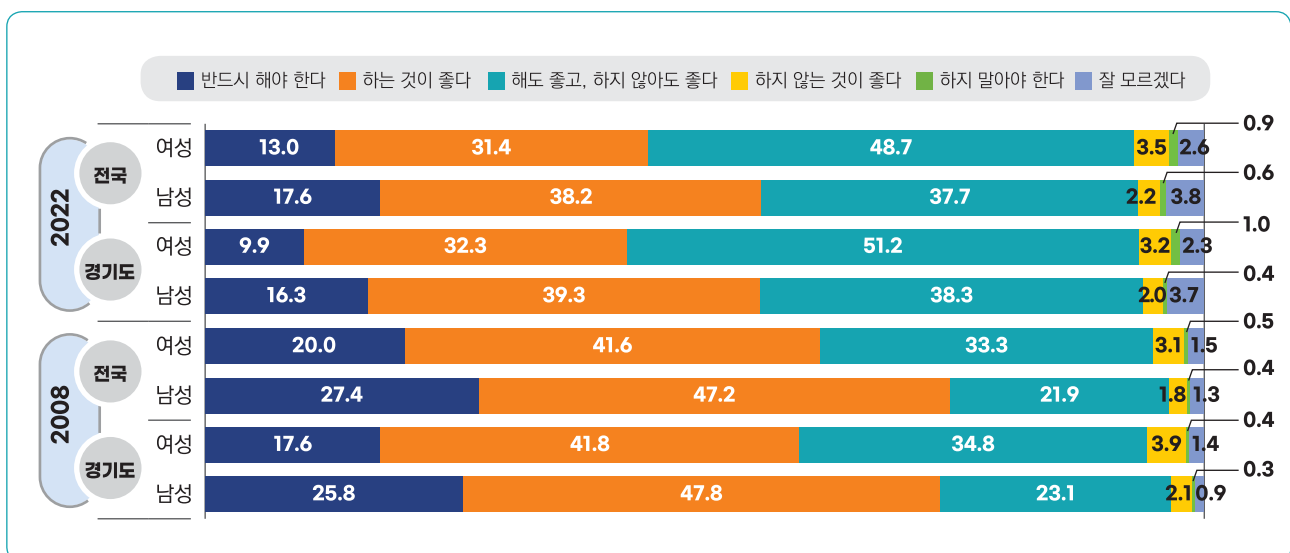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년도).사회조사.

- 결혼에 대한 견해는 성별에 따라 다른 응답을 보이고 있음. 전국기준 여성은 남성보다 ‘하는 것이 좋다’의 응답 비율은 낮고,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의 응답 비율이 높음. 전체 응답에서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해 2022년에도 남성은 ‘하는 것이 좋다’의 응답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17.6%로 높게 나타났음. ‘잘 모르겠다’의 유보적 응답은 2008년 여성과 유사했으나, 2022년에는 여성보다 높은 3.8%의 응답 비율을 보였음. 반면, 여성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의 응답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48.7%가 응답하여 남성보다 11.0%p 높았고, ‘반드시 해야 한다’의 응답은 13.0%로 남성보다 4.6%p 낮았음.
- 경기도는 전국보다 성별에 따른 응답 차이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남. 2022년 경기도 여성은 경기도 남성이나 전국에 비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낮았고,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이로 인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국은 성별에 따라 4.6%p차이를 보였으나, 경기도는 6.4%p 차이가 나타났음.
- 즉, 여성은 남성보다 결혼에 대해 필수적이라 생각이 더 낮은 경향을 보였고 남성은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여성보다 더 강한 경향을 보였음.

그림 13 성별에 따른 전국 및 경기도의 결혼에 대한 견해

(단위: %)



자료: 통계청(각년도) 사회조사.

나. 또다른 선택으로서의 동거

-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동의’¹⁾ 응답이 전국기준 2008년 42.3%로 ‘반대’²⁾ 응답(57.7%)보다 낮았으나 2022년에는 65.2%로 22.9%p 증가하여 2008년 ‘반대’의 응답보다 더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음. 경기도는 전국과 마찬가지로 동거에 대한 동의 응답이 증가하였으며, 전국보다 동의 비율이 약간 높은 특성을 보임. 2008년 경기도의 동거에 대한 동의 응답은 43.8%였으나, 2022년에는 67.3%로 23.5%p 증가하였음. 결혼하지 않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함께 생계를 공유하는 동거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감소하고 삶의 하나의 선택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높아졌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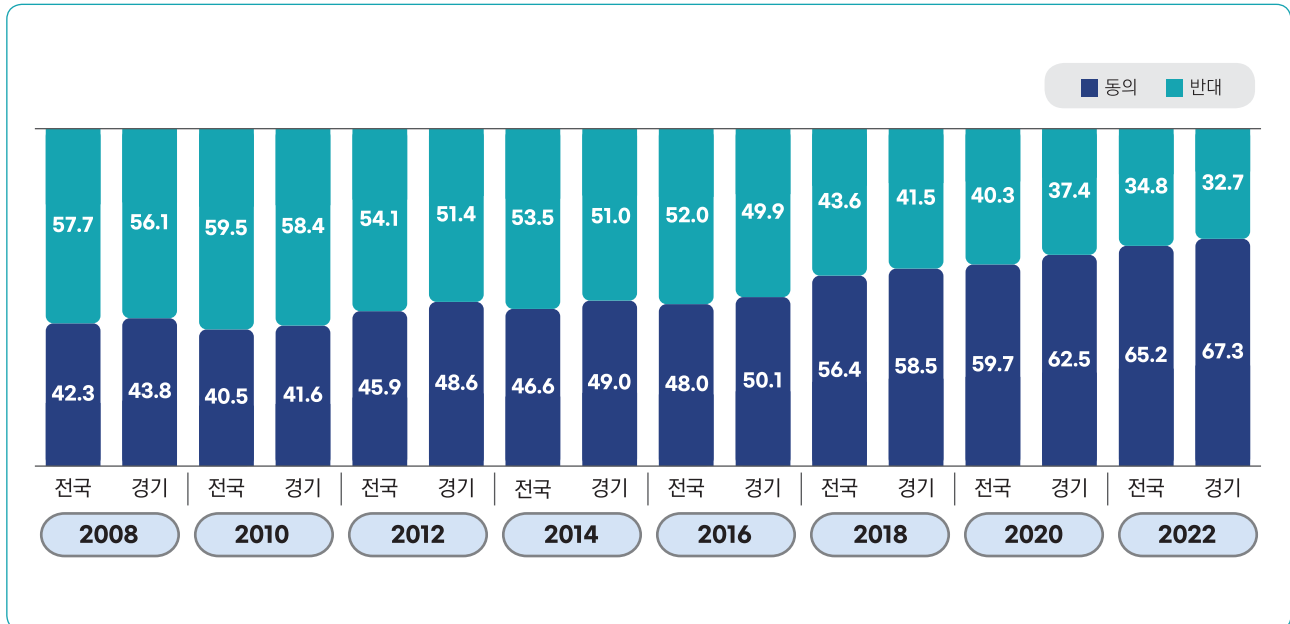
1) ‘전적으로 동의 + 약간 동의’의 응답 비율임.

2) ‘전적으로 반대 + 약간 반대’의 응답 비율임.

- 또한, 경기도는 전국의 동거에 대한 동의 비율이 과반수가 되지 않던 2016년 동의의 응답이 50.1%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여 전국보다 동거에 대한 태도 변화가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14 전국 및 경기도의 동거에 대한 태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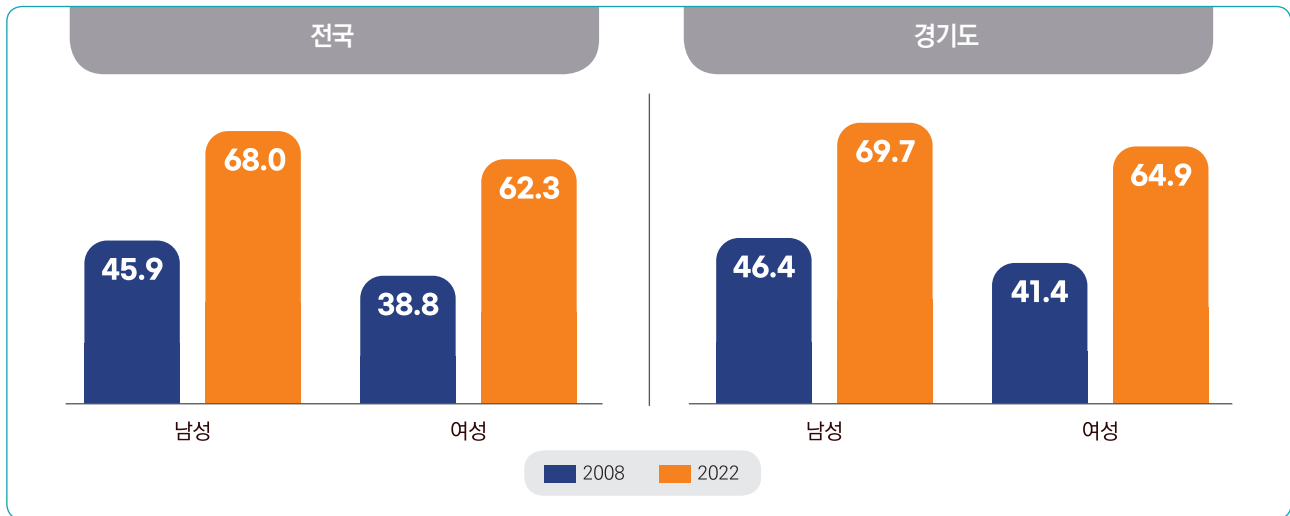
자료: 주. '동의=전적으로 동의+약간 동의', '반대=약간 반대+전적으로 반대'의 응답비율임.

자료: 통계청(각년도)사회조사.

- 결혼에 대한 견해와 마찬가지로 동거에 대한 태도 역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음. 남성이 여성보다 동거에 대해 동의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음. 이는 동의 비율이 낮았던 2008년부터 지속적인 경향으로 동거에 대한 동의 응답 비율이 남성이 더 높았음. 2008년 동거에 대한 동의 응답이 남성은 45.9%, 여성은 38.8%였으며, 2022년에는 남성 68.0%, 여성 62.3%였음. 경기도는 동거에 대한 동의 비율이 남녀 모두 전국보다 약간 높았으며, 2008년 남성 46.4%, 여성 41.4%에서 2022년 남성 69.7%, 여성 64.9%였음. 2008년 전국의 성별에 따른 동의 비율 차이가 7.1%p였으나 2022년 5.7%p로 감소하였으며, 경기도는 전국보다 성별에 따른 응답 차이가 적어 2008년 5.0%p 차이에서 2022년 4.8%p로 전국보다 성별 차이가 적음.
- 결혼은 더 이상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에 반해 동거에 대한 동의가 높아지는 것은 또 다른 삶의 형태로서 동거에 대한 인식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함.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는 여성이 더 전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에 반해, 동거에 대한 태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변화에 더 긍정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어 성별 차이를 보여줌.

그림 15 성별에 따른 전국 및 경기도의 동거에 대한 동의 비율

(단위: %)



주. '전적으로 동의'와 '약간 동의'의 응답 비율임.

자료: 통계청(각년도).사회조사.

인구동향조사란?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 및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신고자가 조사대상임. 조사항목인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관련 항목은 출생신고서, 사망신고서, 혼인신고서를 토대로 수집됨.

- 조혼인율: 1년간 신고된 총 혼인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 연령별 혼인율: 어떤 특정 연령층에서 신고된 남녀별 혼인건수를 그 해당 연령층의 남자 또는 여자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 조이혼율: 1년간 신고된 총 이혼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 연령별이혼율: 어떤 특정 연령층에서 신고된 남녀별 이혼건수를 그 해당 연령층의 남자 또는 여자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사회조사란?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10개 부문을 2년주기로 5개 부문씩 선정하여 짝수년에는 건강, 교육과 훈련, 범죄와 안전, 가족, 생활환경 부문을, 홀수년에는 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부문을 조사함.

- 2008년부터 매년 5개 부문씩 부문별 2년 주기로 조사함에 따라 2008년 이후 짝수년 조사 자료를 사용함.

발행인 김 혜 순
발행일 2024년 5월 31일
발행처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화 031-220-3900
홈페이지 www.gwff.kr
인쇄 디자인인(02-783-8582)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 「GWFF 통계 인사이드」 : 여성가족분야 주요 통계 자료중 경기도 관련 자료나 경기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를 분석, 가공한 자료로 온오프라인으로 발간됩니다. 본 자료는 재단 홈페이지(www.gwff.kr)에서 PDF로 다운로드하거나 메일링 신청을 통해 이메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 031-220-3900)

GWFF

Gyeonggido Women & Family Foundation

통계 인사이트